

# “28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김진표 국회의장 “최종 마무리해야... 국회법 절차”

“승자독식 선거제 폐해 심화... 개헌 등 개혁 필요”

팬덤 정치 폐해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 “국민 눈높이”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

치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오히려 그 사이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연등

형 비례대표제의 약점을 이용한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2대 총선 당시 비례의원 투표지 기호에서 앞번호를 받기 위해 ‘정당 간 의원 귀주’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이뤄진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지금까지도 노 전 대통령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거대 양당 간 대결의 정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치의 정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주요 아젠다로는 저출생 극복을 꼽았다. 그는 “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 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말리지 않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

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아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는 제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날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익을 제기하는 사람들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이냐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당원 득표율은 당선에 5%밖에 기여한 것이 없고, 나머지 90~95% 정도는 전부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것 아니겠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누구의 대표인가. 당원이기 전에 자기를 공천해준 정당에 대한 충성 이전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유권자 눈높이에서 그분들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한 팬덤이 작용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진보, 보수 팬덤들은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쟁의 장에서 배제하고, 집중 공격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 분령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작동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이만호 기자



문승우 도의원, 국제라이온스 군산연합회서 공로 감사패

문승우 도의원이 지난 2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군산지역 연합회에서 국제라이온스클럽(회장 닥터 패티 힐)로부터 공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승우 도의원은 지난 30년간 변함 없는 열정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는데, 군산 금강라이온스의 제26대 회장으로서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힘써왔으며, (사)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서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문승우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정읍 역사 문화연구회’ 간담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 의원 연구단체 정읍 역사·문화연구회(대표 송기순)가 지난 21일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 활동을 나섰다.

정읍 역사·문화연구회는 송기순 대표의원과 이상길, 정성철, 오명제, 김석환, 고성환 의원이 참여하며, 11월까지 정읍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정책자료 및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의 활동 목적과 향후 일정 공유 및 세부적인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의 계승·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송기순 대표의원은 “정읍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 시립예술단 발전 공청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예술단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전반적 현황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예술단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주제 발표 이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는 예술단의 현재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술단 설립 목적인 ‘시민의 정서생활 향상과 지방문화예술 향발’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방위산업, 전북 주력산업 가능성 있다”

김희수 도의원, ‘전북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세미나’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북대학교 뉴 실크로드 센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정책 추진과 관련, 기관별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뉴시스 전북본부 주최로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방위산업 현황 보고와 각 대학 방위산업 추진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희수 의원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핵심산업으로 세계 주요 방산 강국은 자국의 안보 역량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방산 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 또한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2.8%로 세계 8위 국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아직 발전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며, “새만금 부지와 공항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과 탄소산업, 이차전지, 신재생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세미나’가 22일 전북대학교 뉴 실크로드 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탄소산업·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보유 육성을 위해 산학연군 등 관계기관 협력 필요”

에너지 등 방위산업 기술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학·연·군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방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고강도·고탄성으로 경쟁력이 가능한 탄소 소재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해 왔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연계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특화된 인재

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교에 방위산업학과를 확대 개설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방위산업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탄소섬유, 조선, 자동차 등 관련 기업이 사업 다각화로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희수 의원은 지난 12월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만호 기자

## “특별한 치유·의료관광산업 성공 노력”

윤수봉 도의원,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포럼’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 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특별한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포럼(이하 포럼)’에 참석해 참석자 및 관계자들에게 축사를 전했다.

포럼은 전북자치도 치유·의료관광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도내 치유·의료관광 알라이언스, 전문가, 관심 인원과 각 시·군 치유 관광사업 담당자, 그리고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초청된 국내 치유·의료관광 전문가의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치유·의료관광 산업의 동향과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형 치유·의료관광산업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발표 이후에도 △정책/제도, △전통/생활문화, △자연치유, △음식치유,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시·군별 치유 관광산업 전략 등 총 6개 분야별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여 전문가, 운영자, 시·군 등 분야별 주 전문가, 운영자, 시·군 등 분야별 주 전문가가 치유·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치유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및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은 상임위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이다”라며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교육청 추경 확정, 부안교육재정 증액”

김슬지 도의원, ‘본예산 대비 20.4% 약 96억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확정되면서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4% 약 96억원이 증액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로써 부안교육지원청은 2024년 본예산 471억1,321만원 대비 96억3,137만원이 증액된 567억4,459억1,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4%가 증액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안 창의예술미래교육센터 신축 관련 토지매입비 등 약 34억, 부안지역 교직원 연립관사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비(부안고(구)기숙사) 약 4억, 부안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약 10억(부안군 대응투자 1억 확보), 다나무 한지체험관 휴게실 설치비 약 9,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부안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 5,000만원, 교수학습 여건개선비 약 6억4,000만원, 백산중 기숙사 증축비 약 13억원, 백산초, 줄포초 등 공립학교 교사 매수선비 약 2억원, 위도초 내진보강 등 시설안전 개선 사업 약 6억원 등 부안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됐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슬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부안지역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슬지 의원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부안과 전북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지역 건설업 활성화 ‘공동협력’ 다짐

전북자치도,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등과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새만금투자기업인 LS-엘앤에프메타리솔루

션, 에이원 신소재, 대주전자재료(주), (주)유니테스트, (주)코앤드림, (주)산테크코피아 총 10개 기관과 기업이다. 협약 내용은 △입주기업은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지역 생산 자재·장비·인력을 우선 사용 △도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행정적 지원 △지역건설협회는 지역건설업체 현황정보 제공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하고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